좋아하면 알고 싶고

시, 불교를 만나다

㉙ 이 뭣고[是甚麽]? :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잘 알아야 좋아지는 것일까, 아니면 반대로 좋아하면 알고 싶은 것일까? 물론 알면 좋아지고 좋아하면 알고 싶어진다는 점에서 둘 다 맞는 얘기 같다. 하지만 하나를 선택하라면, 후자의 손을 들어 줄 것이다. 이쪽이 좀 더 현실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젊은 시절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 경우를 떠올려 보자. 그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 사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좋은 인연으로 맺어지면, 서로에 대해 훨씬 많은 부분을 알게 된다. 가장 좋은 시절이라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동시에 위험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자칫 잘 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해 모두 안다는 자만과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잘 모른다'는 태도다. 왜 이런 태도가 중요한지, 그것이 갖는 실존적 의미는 무엇인지가 이번 글의 주제가 될 것이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한용운 시인의 '알 수 없어요'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시에서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인지,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없다는 말에는 오히려 알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인지 자연이 전해 주는 진리의 소식을 시인은 알고 싶은 것이다.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했으니 말이다.

만해 한용운은 시인 외에도 출가한 스님, 독립운동가라는 타이틀이 붙은 인물이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체포된 시인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3년 동안 복역하기도 했다. 그는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불교의 대중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방대한 양의 팔만대장경 핵심을 간추려 〈불교대전〉을 간행하고 불교 잡지 〈유심〉을 발간하기도 했다.

시인 한용운을 대표하는 작품을 뽑으라면 누가 뭐라 해도 '님의 침묵'이 될 것이다. 이 시는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각종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곤 했다. 주로 '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시인의 독립 의지가 담긴 조국이나, 혹은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이 정답으로 인정되곤 했다.

우리나라는 한용운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노력으로 1945년 해방됐지만, 그는 광복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했다. 광복 1년 여를 앞둔 1944년 6월 세상을 떠난 것이다. 사인은 뇌졸중이라 한다. 그래도 주옥 같은 작품이 남아 있어 오늘에도 여전히 시인 스님을 기억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그의 공로를 인정해 건국공로훈장 중장(重章)을 수여했다.

오늘의 시 '알 수 없어요'는 자연의 이치와 신비로움에 대해 노래한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과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시인 자신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안다고 했다면, 이 시는 빛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용운은 모른다는 자각이 주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힘을 안 것 같다. 직접 읽으면서 그 에너지를 느껴 보기로 하자.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波紋)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塔)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적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자연의 이치와 신비로움 노래한 작품
'무지' 자각이 주는 종교·철학 힘 담겨
진리 향한 공부와 수행 의지도 깃들어

모른다는 자각에서 나오는 질문

몇 해 전 불교대학에 입학한 기수의 이름을 '단지불회(但知不會)'라 지었다. 다만 모른다는 것을 알라는 뜻인데, 보조국사 지눌의 〈수심결(修心訣)〉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말에 담긴 실존적 의미를 쉽게 전하기 위해 다음의 세 문장으로 압축해서 칠판에 써 놓고 1년 내내 지우지 않았다. "너를 잘 몰라. 그런데 알고 싶어. 네가 좋으니까."

여기에서 '너'는 앞서 말한 첫눈에 반한 대상일 수 있다.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알고 싶은 것이다. 관심이 없어서 굳이 알고 싶지 않다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된다.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자연의 이치, 혹은 종교적 진리 또한 마찬가지다.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으므로 그것을 알기 위해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른다'는 자각이 전제돼야 한다.

모른다는 자각이 중요한 이유는 그때부터 비로소 알고 싶은 마음, 진짜 공부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모른다[無知]는 의미를 강조해 왔다. 예컨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그러자 불만을 품은 어떤 사람이 너는 너 자신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가리켜 흔히 '무지(無知)의 지(知)'라고 한다. 모른다는 각성에서 진정으로 알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공자 또한 〈논어〉에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처럼 모른다는 자각은 진리에 대한 욕구이자 겸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알 수 없다는 시인의 말에는 진짜 알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다. 진정으로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뭣고[是甚麽]?'라는 화두(話頭)가 된다.

한국 선불교에서 중시하는 이 화두는 불교의 진리, 존재의 근원, 마음에 대해 진짜 알고 싶을 때 나오는 물음이다.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話]의 머리[頭], 즉 핵심을 향해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선(禪)에서는 이를 가리켜 사구(死句), 즉 죽은 말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있는 말, 활구(活句)라 한다. 간절함에서 나오는 질문은 화두의 생명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질문은 모른다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한용운은 시에서 계속 알 수 없다고 노래한다.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적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만큼 시인은 알고 싶은 것이다. 이 시는 그저 모른다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위해 공부하고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작품이다. 모른다는 자각에서 나오는 알고 싶은 욕구와 수행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폭발적이다. '이 뭣고?'라는 화두는 그 에너지가 극도로 압축된 상징적 언어다. '알 수 없어요'라는 시가 오늘에도 여전히 의미를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근현대의 고승으로 통합종단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선사의 별명 가운데 '몰라 노장'이 있다. 제자가 질문하면 무조건 모른다고 답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사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다운 공부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발심이 된 눈 밝은 제자라면 스스로 답을 찾으려 애쓸 것이다. '이 뭣고?' 화두를 참구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화두는 내가 안다고 생각한 것이 실은 편견이나 선입견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고집하는 한 질문이 아니라 무관심, 혹은 알 필요 없다는 오만의 감정이 일어날 뿐이다. 예컨대 가족 간에도 서로 안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홀로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지 못한다. 겉으로는 반듯한 모습을 하고 항상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에 지쳐 울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시인의 지적처럼 알 수 없다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야 이런 자기 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홀로 되신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운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무척 알고 싶어요. 왜냐고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일일시호일

신장 절반 손상된 이른둥이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34주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양쪽 신장 절반 이상 손상…신장 이식 필요
장기 치료 필요 상황에 병원비 1500만 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